대불단지 다가구 주택 건립 붐

올들어 24건 370여가구 허가
조선산업 활성화… 수요 급증

영암군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에 18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이 잇달아 건축되고 있다.

올들어 삼호읍 지역에 허가된 다가구 주택은 24건 373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38%인 142 세대는 이미 준공돼 임대·분양에 들어갔다.

이처럼 상가와 모텔외에는 공한지로 남아 있던 대불 주거단지내에 주택 건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조선사업 활성화로 대불산단 분양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호읍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원룸 형태로 임대되고 있다. 특히 10평 기준의 경우 매달 30~35만원, 15평은 50만원등 목포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영산호 하구언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점도 삼호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밖에 18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은 일정 규모의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도 건축 붐에 한몫하고 있다.

한편 삼호읍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삼호읍 용앙리에 16~20평형 554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올해 용지매수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주공은 이곳에 추가로 17~22평 규모의 500여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B종합건설도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건너편인 용당리에 임대아파트 299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서울 Y건설도 대불대학 일대에 30~40평형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화순군 능주~춘양간 국도 주변
메타세쿼이아 62그루 잘릴 위기

4차선 확·포장 공사 따라
이식 어려워 제거 검토중

국도 29호선인 화순 능주~춘양간 도로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173 그루 중 62그루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제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화순군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라 지난해 9·11월 2차례에 걸쳐 통신회사 측과 능주~춘양간 도로에 가설된 초고속 광케이블 현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중 60여 그루의 뿌리가 광케이블 관로를 감싸고 있어 이식 작업시 기간 통신망 단절과 도로 상당부분이 훼손돼 교통장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화순군은 광케이블과 1m 이상 떨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51그루는 지난해 옮겨 심었으며 나머지 60그루는 이식 및 매각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62그루는 제거할 수 밖에 없게 돼 화순군이 고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20여년간 애착을 가지고 정성껏 가꾸어온 공사 구간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전체를 이식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능주~춘양간 국도 29호선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일부가 도로 확장 공사로 제거될 위기에 놓였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남해안 일대 적조 소멸

여수해수청… 5억여원 피해

전남 남해안 일대에 발생한 적조가 사실상 소멸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12일 여수와 고흥 앞바다를 예찰한 결과, 적조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여수와 고흥 앞바다 수온은 섭씨 23~24도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적조는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31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후 전남지역에서는 양식어류 65만 6천 마리가 폐사해 5억 6천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해 적조 피해액은 3천만 원이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독거노인 주거개선 도와
농협 화순군지부·도곡농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도곡농협은 지난 12일 도곡면 죽청리 독거노인 주택에서 '2007년도 제 3차 사랑의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화순군지부와 도곡농협 임직원들은 이날 벽 도배와 장판 교체, 식기 세척,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쌀 등을 전달했다.

정종순 지부장은 "앞으로도 한방 건강강좌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거개선 봉사활동,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사업을 실시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인구 10만명으로… 소득 10% 증대
동부권 '친환경'·서부권 '첨단산업'

화순 '비전 1030' 세부 추진 계획 확정

화순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1030' 세부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 비전 1030은 화순을 크게 동·서부 2대 권역으로 구분해 동부권은 친환경, 서부권은 첨단산업이 육성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4년간 3천360억원을 투자해 신규 농공단지와 생물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0대 특산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모후산에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투자법인을 설립하며 복합 문화체육관도 건설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 증대를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살기 좋은 10대 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전 30'으로는 ▲군 자립도 30% 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 증대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여건 30%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주관으로 성과 측정과 평가 등을 통해 '비전 1030' 실천에 집중해 잘 사는 화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 활용
고흥교육청, 교원 업무 줄인다

고흥교육청(교육장 진동렬)은 지난 10일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킨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초·중·고 담당자 등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관계자를 초청,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일선 학교에서 한번 입력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매년 반복되는 통계요구자료에 쉽게 응할 수 있어 일선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기대되고 있다.

고흥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이 적극 활용되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일선 학교에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